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2월 29일 (제103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나는 효자야

요즘 나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연로하신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자책을 많이 했다. 왜 잘못된 일만 생각이 그리 나는지...

예수를 만나고 부모님이 일궈놓은 재산을 무 자르듯 잘라 복음 전하는 일에 썼다. 일찍 남편을 여윈 어머니는 큰아들인 나를 의지하고 싶으셨을 텐데 나는 어머니 환갑에도 부흥회를 갈 정도로 예수만 외치며 다녔다. 이를 못 참으신 어머니는 “예수가, 야순가에 미친놈은 나가라!” 하셨고, 그 후 무려 13년 동안 어머니를 뵈지 못했다.

자식을 쫓아낸 어머니의 마음이 어찌셨을까. 셋째인 이시대 목사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술을 조금 드시고는 방에 들어가 통곡을 하시더라. 놀라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오늘이 네 형 생일인데 내가 안 찾는다고 너까지 모른 체하냐’며 마구 혼내시더라. 이시대 목사는 어머니가 형을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말을 전하는데, 나는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이 가슴까지 느껴지는 듯해서 아팠다. 어쩌다 집을 찾아가면 내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던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임을 나는 잘 안다.

그런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 누워계신다. 괴로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그 말씀을 받고 나니 괴로움이 안개 걷히듯 사라졌다. ‘그래, 나는 어머니에게 불효를 한 게 아니야. 어머니를 구원했고, 권사가 되게 했잖아. 내 형제들을 다 예수 믿게 했고, 3명을 주의 종이 되게 했어. 그 이상 효도가 어디 있어? 난 효자 중의 효자야.’ 그렇게 나는 스스로 위로했다.

부모는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벌써 2019년이 다 지났지 않은가. 세월이 야속하다 하지 말고 지금 효도하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피자. 그리고 가장 큰 효는 영혼구원이니 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자. 더 늦기 전에! 후회보다 아픈 것은 없으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자!

Know your purpose in this world

우리는 지난주일, 목사님의 성역 35주년 특별영상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었다. 아마도 예수중심교인이라면 그 영상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 감동과 감격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만큼 목사님과 함께 걸어온 35년의 기록은 시련과 영광이 교차하며 만감이 스치는 장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35년, 목사님과 함께 영광의 기록을 써내려왔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 왔다가 떠난 사람, 후에 들어온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중심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어떠한 목사님이 걸어오신 길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시련과 영광의 시간을 보고 어찌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는 시점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영상을 보고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하거나 감격에만 젖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목사님께서 이런 영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자화자찬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발 믿음을 가지라는 호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 당신도 그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격려다.

목사님은 최근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강력히 선포하셨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 신앙생

활에 경험이 되며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신앙의 지표가 될 수 있다면 족한 것이다. 거기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지막까지 싸워 이기는 것이 그분 앞에 서는 날, 당당히, 그리고 한없는 기쁨으로 주님의 낮을 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또 다시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비록 그 시절보다 나이가 들고 육체는 연약해져서 힘들지라도 목사님께 배운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의 영혼은 더욱 청정해져가야 한다.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은 바로 우리 영혼의 강건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목사님은 “매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고 2019년 한 해의 행동지표를 제시하셨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삶을 강조하셨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사람의 말을 하고, 우리의 육체는 사람의 행동으로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능력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다듬어가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나 인간 세상의 타성에 쫓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항상 “나는 나의 일을 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은 시류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 66권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범사를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조명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는 결코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믿음의 표본이다. 목사님이라고 인간인 이상 35년을 걸어오시는 동안 왜 시행착오가 없으셨겠는가마는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설교를 통하여 가감 없이 간증하시지 않던가. 연약한 인간인지만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고, 유혹 받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그 이전에 어떠한 하나님은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절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2020년을 맞이하며 목사님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자!”고 말씀하신 바를 깊이 성찰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보자. 그것만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고갈 수 있는 분명한 우리의 상이기 때문이다.

한은택 목사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 밤 9시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0:13)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

12월 22일이 저의 목회 3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35년의 목회 여정,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안수한 교단으로부터 제명되는 것을 시작으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처자, 친구까지 다 떠나는 아픔을 겪었고, 마스크는 저를 만물의 찌꺼기로 만들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 어깨에 짊어지지 못할 만큼의 무거운 짐을 지우겠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문제를 내겠습니까?

시험은 성장촉진제다 시험을 통해 성장발전하라

저를 보십시오. 비록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를 걸었지만 제가 죽었습니까? 제가 목회를 못했습니까? 험한 길은 걸었지만, 하염없이 물어대긴 했지만 이겨내고 지금 세계 72개국을 교구 삼아 목회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중심교단을 세우고 그 아래 수많은 예수중심교회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긴 했지만, 견딜 수 있는 만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죽이기 위해 고난 속으로 몬 것이 아니라 저를 강하게, 정금이 되게 하시려고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 쉼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한 것처럼, 욥에게 모든 재물과 자식을 다 앗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그들은 다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23:8~10).

정금(精金)은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처음

엔 광석에 불과하지만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40일 동안 세 번 견디어야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제련사는 최적의 시간에 금을 용광로에서 끄집어내려 신경을 곤두세우며 용광로 안을 늘 지켜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훈련 시켜놓고 판청 피우시는 것이 아니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물론 인내가 필요합니다. 눈물도 흘려야겠지요. 그러나 장색이 쓸 만한 정금이 되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



총회장 이초석 목사

난 중에 즐거워 하 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3~4). 소망, 곧 정금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능한 농부는 약한 소에게는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대신 힘센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요. 약한 소가 멍에를 쓰게 되면 주저앉게 되고 자칫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자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을 볼 때 시험 범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까? 아는 범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듯, 하나님의 훈련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거든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접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처음 예수를 만나 정말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할 때였습니다. 이것저것 주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하던 저에게 시험을 준 것은 바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제 돈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해놓고, 성도

들을 섬기는데 저더러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시험이었지 모릅니다. 막 걸음마 하며 신나하는 아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황급에 예전에 다니던 맥주집에서 생맥주를 들이키고는 집에 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천둥 치듯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이하를 보라!” 저는 깜짝 놀라 깨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볼로 연단 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 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1:6~7). 예수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저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2~4). 시험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트레이너는 선수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훈련을 시킵니다. 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지요. 시험이 이와 흡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시험을 통해 알 수 있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이 오는 것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달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릅니까? 외롭습니까? 공허한 중에 있습니까? 바다에 파도가 항상 있듯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은 파도같이 매번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을 들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저앉지만 앉으면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습니다. 성장과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일에도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라

시험이 아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달가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오는 시험이라면 당당히 이를 접수하는 겁니다.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와 상처를 내면 조개는 그것을 수용하고 이물질을 내서 그것을 감쌉니다. 그 과정을 통해 상처는 값비싼 진주로 탄생됩니다. 여러분에게 온 시험을 접수하여 그것을 승화시키면 여러분의 삶에 값진 진주가 생성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4:12~13),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히12:11).

여러분, 바람이 불 때는 앞드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께 앞드려 기도하세요. 이 시험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고, 이 시험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은 분명히 시험 범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가세요. 당신은 지금 동굴에 갇힌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곧 태양이 빛나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당신에게 쏟아지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2:18).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사업에서의 적절한 품성

올 한 해 동안 워런 버핏의 위대한 동업자 찰리 멍거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멍거가 강조하는 사업에서 필요한 몇 가지 품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한 장의 종이 가 아니라, 온전한 사업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사업의 중요한 근본 중 하나는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버크셔에서 하는 중요한 경영활동은 자본 배분입니다. 멍거는 ‘투자자가 처음 할 일은 자본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본을 배분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창출된 현금을 버크셔가 가진 최고의 기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투자하기에 적합한 기업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이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보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크셔의 경우 적합한 성과보상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특히 어렵기 때문에 멍거와 버핏은 금전적인 사유는 최고경영자로서 일하는 극히 부분적인 동기일 뿐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멍거는 뛰어난 경영자보다는 뛰어난 해자를 더 선호합니다. 물론 최선은 뛰어난 경영자와 뛰어난 해자 둘다 확보해서 커다란 안전마진을 보유하는 것이지만, 버핏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뛰어난 기수가 뛰어난 말을 다루면 좋은 성적

이 나온다. 하지만 뛰어난 기수라도 망가진 말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뛰어난 경영자를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멍거는 경영자가 단순히 경영자로서의 태도보다 사업의 소유주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길 원합니다.

넷째로 멍거는 사업을 하는 품성 중 성실이 재능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실한 사람과 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되며 더불어 경영자의 성실에 의존하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멍거와 버핏은 ‘우리는 성실과 재능을 갖춘 경영자 자리 잡힌 사업을 매우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멍거와 버핏은 ‘실적이 개선될’ 회사에 투자하기보다는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진이 최악이더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해자가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뛰어난 경영진과 넓은 해자를 확보한다면, 투자하는 시점에 이미 든든한 안전마진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의 팁을 끝으로 여러분 역시 성공적으로 집중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익혔기를 바라면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기를 권합니다. “멍거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매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이초석 목사님을 평하라?

나는 어릴 적 찌리문을 사이에 두고 이초석 목사님의 방배동 집과 연하여 살았다. 나이 차도 있고 워낙 일찍부터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 가까이할 기회는 없었지만 예수를 평하던 나사렛 사람처럼 이초석 형님이 목사가 되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너무 의외였던 터라 이시대 목사님과 절친이었던 형과 인 천 송의동 성전을 방문하여 설교를 들어보니 그저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 후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여곡절의 시련 끝에 예수중심 교단의 목사가 되었다. 참 신기한 일은 목사님에 대한 나의 의구심을 꿈으로, 음성으로 주님께서 신원해주셨다. 모든 의구심을 떨치고 목사님을 진정 스승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 세월이 무려 50년 가까운 세월이다.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청하자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

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

나는 종종 지인들에게서 총회장 목사님의 세상 평에 대해서 들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얘기한다. “나를 보라. 알다시피 내가 이단을 추종할 것으로 보이느냐? 나와 이초석 목사님의 신앙의 본질은 같다. 나를 보면 이초석 목사님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분의 삶을 존경한다.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가게 되었다. 일본 지바교회의 11대 목사로 초빙되었다. 뼈를 그곳에 묻을 각오다. 너무 많은 제자들이 통찰을 했다고 가슴 아파하는 목사님께 희망과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 “목사님! 위안과 보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꼭 그리워 겁니다.”

이광주 목사



:: 소망의 언덕 ::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라

이번에 성탄절 예배와 부서의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의 교회활동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자녀들이 겪었던 과정을 먼저 지나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마음과 입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학부모의 솔직한 심정은 행여나 내 자녀가 교회에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다가 세상의 다른 자녀들에 비해 뒤처지거나 경쟁에서 밀릴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니 너희는 믿고 축복만 받아라!’는 마음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객체 구원, 객체 상급, 객체 심판을 이야기한다. 에스겔 14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부모가 노아처럼 수십 년을 순종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니엘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며, 욥처럼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

았어도 심판의 날에는 그 의로 자식들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이 아무리 전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도, 그런 목사님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는 목사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눈물의 기도가 온 가족을 구원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학생이 공부를 하고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으며, 직장인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자기 계발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성경은 청년의 때에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경고한다(전11:9~12:1). 믿음의 부모라면 하나님을 향한 자녀의 열심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날까 걱정하며 자녀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요계벤티 모세에게, 한나가 사무엘에게 그랬듯이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신혁주 전도사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에게 어느 어머니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낯두리를 합니다. 한참을 듣던 정신과 의사는 “죽어야 할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어머니’라고 지칭하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랭클은 아흔아홉 가지 죽을 이유를 찾지 말고,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최근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만으로도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 때는 2020년 예수중심제자원에 지원하는 한 교사가 설교 중에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10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과연 한 교사가 혼자 총만해서 좀 과한 메시지를 증거한다면 부담스러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 다. 이 외침에 예배를 함께 드린 학생, 교사 심지어 장로님조차도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그 외침이 곧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요(마6:33, 행1:8),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배운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두가 그 사명의 배에 승선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을 35년간 따라온 예수중심교회 교인이자라면 누구라도 ‘나의 삶의 이유는 예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때에 우리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 판에 다져 ‘예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현승 목사
coollee0817@naver.com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1994년 5월경 예수중심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지내다가 2013년경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은 보통의 선데이크리스천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목사님에 대한 불만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017년 6월경 제 아내 김정난 집사가 태안사랑예수중심교회 옆에 있는 식당을 다시 인수하게 되어 태안에 내려오게 되었고, 태안에서도 서울에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중, 10월 25일경 밤에 소변을 보는데 잔뇨감과 함께 소변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 다음날 바로 태안에 있는 비뇨기과를 찾았더니 전립선 암수치가 정상인은 0~3인데 저는 30이 나왔습니다. 저는 시골이라 믿지 못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서울에서 유명한 청량리의 한 비뇨기과를 찾아가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 다. 그런데 역시 암수치가 23이 나왔고, 전문치료를 받기위해 건국대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암수치가 30이 나와 조직검사를 한 결과 전

립선암 2기말이나 3기 진단이 나왔고,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검사하니 담당의사가 잔존암이 있어 방사선 치료를 권유했고, 저는 3개월에 걸쳐 33회의 방사선 치료를 마쳤습니 다. 그 후 4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검사를 받고 다니던 중, 올해 2019년 10월 23일에 MRI검사로 확인해보니 담도가 늘어나고 암이 있다며 병원에서는 12월 9일 특수촬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수술방법을 의논해보자고 했습니다.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담도암이라니요. 담도암은 진단이 떨어지면 다들 어렵다고 하는 암인데... 그날부터 저와 아내, 처형인 김정빈 권사와 남편 최형산 집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담임목사인 국승봉 목사님은 제 소식을 듣고 철야기도를 하실 때마다 저의 병 고침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셨으며, '추계산상집회에 참석하여 총회장 목사님께 안수 받아 고침을 받자'라는 아내와 처형, 국승봉 목사님의 권유에 마음을 잡고 11월 25일,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날 설교 후, 이초석 목사님께서 아픈 사람들 축사하실 때 단에 올라가 안수를 받았을 귀신이 드러났고, 둘째 날 낮에 총회장 목사님 사택에서 상담하며 축복기도를 받고, 셋째 날 저녁에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다 일으켜 세우신 후 단에서 "나를 봐!" 하시고 "귀신아, 가라!" 하실 때, 목사님의 손을 보는데 제 속에서 뭔가 쏙 올라오면서 몸이 휘청휘청 해졌는데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그때 제 속에 있던 암을 일으키는 귀신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한 추계산상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생활하는데 계속 열이 나서 감기인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12월 1일 주일 아침에 열이 너무 올라 119구급차를 불러 서산의료원으로 급히 갔고, 진료받았던 곳으로 가라해서 구급차를 타고 건국대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조취를 취하고 입원해 다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은 콩팥에 염증이 있어 탈수가 심해 오른 거였고, 전체 검사 결과는 날짜가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국승봉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저의 쾌유를 위해 합심기도를 했고, 저는 상태가 점점 좋아져 갔습니 다. 12월 6일 금요일에 담당의사가 말하길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며 담도암이 흔적만 있고 없어졌고, 콩팥의 염증도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가족과 담임목사님과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신천지로 빠질 뻔한 성남사는 친구를 전도하게까지 하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셨으니 어디서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믿을 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안사랑예수중심교회 임창한 집사

새로운 습관 만들기

어느덧 2019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0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신년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달려나가려고 의욕을 불태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로버트 마우어의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저서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일이나 큰 변화는 인간의 뇌로 하여금 자연스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고 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뇌가 변화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작은 실천과 성공을 반복적으로 이룸으로써 차차 습관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제안한다. 뇌를 속이는 것이다. 위 방법을 적용한 예를 보자.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진 환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1주일에 2~3번씩 1시간만 걸으세요'라는 방식 대신, '매일 저녁 TV 보면서 1분만 꼭 걸으세요'라고 했다. 극히 쉬운 목표량에 환자는 당연히 목표를 완수하였고, 앞으로는 오히려 좀 더 길게 운동하고 싶다고 의사에게 제안하며 걷는 시간을 차츰 늘려나갔다. 이렇게 아주 쉽고 작은 일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스스로 뇌를 속이고 작은 성공을 거듭하며 성취감을 맛보게 되어 결국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2020년 새해,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번엔 새로운 방법으로 작은 것부터 다시 한 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반복해보자. 목사님께 항상 들어왔듯이 결국 습관이 우리 운명을 만든니까.

장명훈 집사

주님과 함께할 2020년

:: 내가 매일 기쁘게 ::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다 지났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항상 이맘때 하는 말 중에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는 듯하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매년 많은 일이 일어나곤 하지만 개인적으로 2019년은 나에게 특히나 더 특별한 한해였다. 그래서 돌아해보면 감사함으로 가득한 한해였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빛이 밝으면 그 바로 아래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이다. 지난 10월, 부산영화제 참석차 내려갔다 돌아오는 길에 공황발작 증세를 겪었다. 그리고 공황장애에 판정을 받았다. 감사하게도 큰 사고나 사건 없이 소소하게 증세를 겪고 있지만, 시시각각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한다.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롤러코스터가 막 출발하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고, 일과가 끝나고 나면 두 발은 막 목욕탕에서 나온 것처럼 땀에 젖어 조글조글한 상태로 붙어있다. 어느 순간 사람이

많은 곳이 두려워 매일 앉아 있던 도서관 열람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일에 배를 보고 나면 정신이 아득해져 녹다운이 되기도 했다. 매일이 심장이 쫘쫘한 나날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루만큼은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혹자는 공황장애를 5년, 10년, 30년을 앓고 있다고도 한다.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매일 기도와 결단으로 하루를 다잡고, 매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견디기 힘든 어느 주일이였다.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휩쓸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날, 주님의 말씀이 다시금 찾아왔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 43:1~2) 앞뒤 가릴 것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성경의 구절들을 검색해보았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로 검색한 말씀 구절은 다 합쳐서 366건이나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매일 쓰러져도 매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의 한해가 또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 나는 나를 이겨낼 수 없지만,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상황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새롭게 시작할 2020년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어디서든 잘 헤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전훈지 집사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2019년 마지막 주간이다
시작할 때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냐
자문자답해보자